[별지 제1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탐 방 프 로 그 램 인 증 신 청 서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추진목표	자연과 떨어져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본래 우리는 옛날부터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왔음을 체험을 통해 알려주면서 자연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다.		
운영장소	☑공원지역 ☐ 공원외부 ☐혼합형		
유 형	☐해설자안내 ☐스스로 안내 ☐체험형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범주	☑자연해설 ☐역사문화 ☐해안생태 ☐갯벌사구 ☐경관해설 ☐거점해설 ☑체험형 ☐슬라이드 ☐탐방안내소 내부 ☐기타 ( )		
운영 대상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일반성인 ☐노인층 ☐외국인 ☐사회적 약자 (장애자 등) ☑가족단위 ☐구분 없음 ☐기타 ( )		
운영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 없음		
모집인원	20명 내외	진행시간(분)	90분
운영자	관리자 : 일반직6급 박지부 해설가 : 자연환경안내원 빈윤옥		
활동장소 및 장소특성	산골 생활을 엿 볼 수 있는 맹세이골 자연 관찰로 (0.8km) 호랑이가 살았던 지리산 자락의 깊은 산골마을로 60년대까지 자연과 더불어 사람이 살아왔던 터와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옛날 산골마을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운영자원	집터, 숯 가마터, 주막터, 옛날 화장실, 옛날 집, 그 외에 관찰로의 나무		
제출자료	1. 인증신청서(별지서식-1) 2. 프로그램 운영개요(별지서식-2) 3. 해설 시나리오(별지서식-3) 4. 해설가용 참고자료(별지서식-4)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2009년 9월 1일	신청인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프로그램 개발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프 로 그 램 운 영 개 요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활동목표	본래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왔음을 체험을 통해 알려주면서 자연과 우리는 하나임을 알려주고 자연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우쳐줌		
해설주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맹세이골 마을 사람들의 생활 모습		
해설재료	집터, 숯 가마터, 주막터, 옛날 화장실, 옛날 집, 그 외에 관찰로 식물이야기	소요시간(분)	9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운영자원 (준비물)	소요 시간(분)
동기 유발	1.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	· 소개 및 인사나누기 -국립공원의 중요성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		3‘
	2.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및 맹세이골 소개		3‘
주제별 해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 유용하게 쓰인 나무들 -싸리비를 만들었던 싸리나무 -조릿대로 쓰였던 산죽 -우리민족과 함께한 소나무	싸리나무, 산죽, 소나무	3‘
		· 마을주민이 살았던 집터	집터	3‘
		·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모습들 -향신료로 쓰인 생강나무 -기름때를 없앤 때죽나무 -산골마을의 먹거리(덩굴식물)	생강나무, 때죽나무, 덩굴식물	5‘
		·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계수단 -숯을 모으는 장소였던 주막터 -숯을 구웠던 숯 가마터와 숯 굽는 과정	주막터, 숯가마터	5‘
		· 굴참나무의 희생	굴참나무	3‘
		· 맹세이골의 화장실구조 -똥을 이용한 퇴비 만들기	옛날 화장실	3‘
		·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	당산나무 (팽나무)	3‘
		· 옛 선조들의 지혜 -방향제로 이용한 나무(누리장나무) -식용과 약용으로 쓰인 나무들 (산초나무, 초피나무) -비단옷을 만든 뽕나무와 누에	누리장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뽕나무	6‘
		· 맹세이골 황토집	옛날 집	5‘
		· 황토집 앞마당의 과일나무들 -곶감을 만들었던 감나무 -아이들의 간식이었던 복숭아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3‘
	4. 나도 산골사람이에요!	· 산골마을 주민 체험	키, 맷돌	15‘
정리	5. 맹세이골 되짚어 보기	· 게임으로 다시 보는 맹세이골	프린트, 볼펜	25‘
마무리	6. 마무리 및 인사	· 느낌나누기, 마무리 인사		5‘

신청인 : 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	인사 및 국립공원의 중요성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
인사 및 소개	▣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맑고 화창한 날 경치 좋고 아름다운 지리산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이곳은 어디일까요?(참가자 대답) ▣ 네.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몇 개일까요?(참가자 대답) 20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일까요?(참가자 대답) 네~!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을 포함한 산악형 16개, 다도해와 같은 해양·해안형 13개, 경주와 같은 사적형 1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소중한 문화자원, 반달가슴곰과 같은 희귀한 동물 등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에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산악형 국립공원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리산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가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여 지리산으로 부르며, 백두산의 맥이 뻗어 내렸다 하여 '두류산', '봉래산(금강산)', '영주산(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로 '방장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코스 소개 맹세이골 소개
맹세이골 소개	▣ 그렇다면 여러분은 맹세이골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기보다 먼저 이곳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깊은 산골짜기 굽이, 굽이, 굽은 길에 어디선가 슬금슬금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지 않던가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얼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진짜 사람이 살긴 살았을까요? ▣ 이렇게 깊은 골짜기 맹세이골에도 사람은 살았고 한때는 번성한 마을이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사람이 떠나버리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리산에 호랑이는 살고 있을까요? 맹세이골에는 옛날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으로 '맹수(猛獸)가 사는 골짜기'라는 의미로 '맹수골'에서 '맹수이골'하다가 '맹세이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옛날 이 지역에 소와 말을 많이 키워서 아래 골짜기는 '소막골', 그리고 여기는 '망세이골'로 불리었는데 '맹세이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맹세이골에서 살았던 옛날 산골마을 사람들의 흔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중에 모든 해설이 끝나고 나면 게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설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유용하게 쓰인나무들
싸리비를 만들었던 싸리나무	▣ 첫 번째 흔적입니다. 이 나무는 '싸리나무'입니다. 혹시 옛날에 나무를 엮어서 만든 빗자루를 이용해 마당을 쓸던 모습을 본적이 있나요? 지금은 그 빗자루를 찾기가 어렵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나무가 싸리나무입니다. 그리고 옛날 대문도 이 싸리나무의 줄기를 이용해서 문짝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 외에도 싸리나무의 가지를 이용해 소쿠리나 1)채반, 2)키 등을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아주 유용한 나무였답니다. 혹시, 이중에서 부모님께 회초리로 맞아본 사람 있나요? 네. 역시 다들 착하고 부모님 말을 잘 들어서 회초리로 맞아본 적은 없나봅니다.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지..... 옛날에는 이 싸리나무를 회초리로도 만들어서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맹세이골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싸리나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곳에는 광대싸리와 조록싸리, 참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초리 들기 전에 제 말에 귀 기울여서 잘 따라오세요!

1) 채반 : 싸리나 대나무껍질로 울이나 춤이 없이 둥글넓적하게 결어 만든 그릇.

2) 키 : 곡식 등을 까불러 쭉정이, 티끌을 골라내는 그릇.

[별지 제3호 서식]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유용하게 쓰인 나무들
조릿대로 쓰였던 산죽	▣ 맹세이골을 오르다 보면 왼편에 키 작은 대나무가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작은 나무를 옛날 산골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였을까요? ▣ 그 전에 여러분, 대나무는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대나무는 나무인지 풀인지 논란이 많은 식물입니다. 오래 살고 단단한 목질부가 있어 나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관다발형성층이 없어 부피생장을 하지 못하고 속이 비어 있으니 풀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풀과 나무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 대나무류로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식물학적으로는 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그렇다면 이 키 작은 대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죽'입니다. 산죽은 산에 나는 대나무라는 의미에서 '산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쌀 씻을 때 돌을 걸러내는 조리를 알고 있나요? 그 조리를 이 산죽을 이용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산죽을 '조릿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 산죽의 열매는 옛날에 흉년이 들면 배고픔을 달래려고 먹기도 하였답니다. 참으로 우리 생활에서는 이로운 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유용하게 쓰인 나무들 마을 주민이 살았던 집터
우리 민족과 함께한 소나무	▣ 그렇다면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와 우리 민족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맹세이골 주변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3)대원사에서 소나무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잘 보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소나무의 송진으로 불을 밝혀 책을 읽고, 바느질을 하였으며,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걸어 나쁜 기운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옛날 맹세이골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소나무와 함께 생활했을지 상상하면서 다음 흔적을 찾아 떠나보도록 해요.

3) 대원사 : 지리산 동쪽 자락에 있는 비구니 사찰. 삼국시대 신라 진흥왕(9년) 때 연기조사에 의해 창건 되었다가 임진왜란과 여순사건으로 전소 된 후, 1955년 김법일 스님이 중건함.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유용하게 쓰인 나무들 마을 주민이 살았던 집터
집터	▣ 우와, 이 쌓아놓은 돌을 보세요. 과연 이곳은 무슨 용도로 쓰인 곳일까요? 이곳은 옛날 산골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입니다. 여기 보이는 돌 위에 흙을 얹어서 집을 만들었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집과는 많이 다르게 생겼지요? 그리고 1960년대 초 이후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는 대원사가 있습니다. 대원사에 가기위해서는 대원사계곡 위의 다리를 건너야했습니다. 그런데 비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사 스님들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 때까지 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모습들
향신료로 쓰인 생강나무	▣ 여기, 나뭇잎을 보세요. 나뭇잎이 꼭 포크모양을 닮았지요? 그리고 하트 모양도 있고요. 그럼 이 나뭇잎을 문질러서 냄새를 맡아 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참가자 대답) 네. 생강냄새가 나지요? 이 나무는 그래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옛날에 생강이 귀하던 시절에는 생강냄새가 나던 이 나무의 나뭇잎을 말려 가루를 내어서 생강대신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잎은 말려 달여서 차로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산골에서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동백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생강나무의 열매에서 기름을 짜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동백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기름때를 없앤 때죽나무	▣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까맣죠? 손으로 나무를 문질러보세요. 어때요? 꼭 때가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나무를 '때죽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때죽나무는 열매를 찧어서 물에 풀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 해서 때죽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때죽나무의 열매 껍질로 독화살을 만들기도 하고, 기름때를 없애준다고 해서 비누로도 쓰이기도 했답니다. ▣ 이렇듯 옛날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모습들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계수단
산골마을의 먹거리 (덩굴식물)	▣ 이곳을 보세요. 여기의 나무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나무들과는 다르게 생겼지요? 다른 나무에 기대거나 얽혀 있는 이 식물들은 덩굴식물입니다. 여기에 덩굴식물이 많은 이유는 옛날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 덩굴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줄기는 바구니를 비롯해 각종 생활도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덩굴식물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다래, 머루, 칡, 마, 더덕 등 유용한 덩굴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숯을 모으는 장소였던 주막터	▣ 이곳은 어디일까요? 뭔가 있었던 것 같긴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터만 남아 있지요? 여기는 옛날에 '주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산골마을의 사람들은 주로 숯을 구워 팔아 생계를 유지 했는데 이곳이 생산된 숯을 모으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 그리고 숯을 모아서 이동할 때 마차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마차가 들어올 정도로 원래는 이곳이 큰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잘 보세요. 옛날 이곳까지 마차가 들어올 정도로 넓은 도로가 있었다는게 믿겨지시나요? 놀랍지 않나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계수단
숯을 구웠던 숯 가마터	▣ 여길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도 아까 옛날 집터처럼 돌이 쌓여져 있죠? 이곳도 집이었을까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주막을 설명하면서 이곳 산골사람들의 주요 생계수단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참가자 대답) 네. 바로 숯이었죠. 바로 이곳은 숯을 굽던 '숯 가마터'입니다. ▣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맹세이골에서는 약 20여 가구가 숯을 굽고 소규모 경작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 숯을 굽는 것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마을 주변을 농토로 개간하여 고구마, 감자, 콩 등을 심거나, 산나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속 생활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한 집, 두 집 맹세이골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1962년 김남구씨를 마지막으로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큰 나무가 없이 고른 기름진 땅이었는데 마을사람들이 떠난 40여 년 동안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자연으로 되돌아가 맑은 계곡 소리 가득하고 울창한 나무가 많은 숲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옛날 산골마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계수단
숯 굽는 과정	▣ 그럼 옛날에 숯을 어떻게 구웠는지 알아볼까요? 숯을 굽는 과정을 보면 참나무를 숯가마에 세워서 가득 쌓은 다음 굴뚝을 만들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3~4일 정도 태우고, 굴뚝과 아궁이를 막고 4~5일 정도 식혀서 숯을 만듭니다. 숯은 산골 마을 사람들에겐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으므로, 모든 작업은 마을공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숯은 옛날에는 귀한 연료였으며, 응급약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였답니다. 그리고 숯은 장을 담그는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요즘에는 냄새와 습기제거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지요. ▣ 그럼 숯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네. 진짜 나무, 고마운 나무라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참나무로 굽는답니다. 참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기 어디... 참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별지 제3호 서식]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굴참나무의 희생
참나무 (굴참나무)	▣ 이 참나무는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중 하나인 굴참나무입니다. 껍질이 두껍고 부드러워 병마개나 고급 건축자재로 인기를 끌면서 껍질을 벗겨내는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굴참나무가 맹세이골에서는 어떻게 의로운 희생을 하였는지 알아볼까요? ▣ 굴참나무를 만져 보세요. 푹신푹신하지 않나요? 여기 맹세이골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굴참나무의 껍질을 벗겨 외벽에 붙여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맹세이골의 주요 생계수단이었던 숯을 만드는 원료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굴참나무는 맹세이골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희생했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 굴참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껍질을 벗겨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굴참나무의 영양분이 이동하는 물관과 체관부분에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피는 다시 푹신푹신하게 돋아난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를 이용하는 맹세이골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맹세이골의 화장실 구조
똥을 이용한 퇴비 만들기	▣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옛날 맹세이골의 실제 화장실이였다고 합니다. 그럼 옛날 산골 마을의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의 구멍이 뻥 뚫린 귀신의 손이 나온다는 재래식 화장실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맹세이골도 재래식 화장실 구조와 비슷하지만 산골마을의 지형을 잘 이용한 구조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 맹세이골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똥을 바로 모아 퇴비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똥 먹는 돼지를 기르는 화장실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2층이 화장실이고 사람이 똥을 누면, 1층은 밑으로 떨어진 똥을 모아 풀과 섞어 퇴비를 만드는 퇴비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퇴비를 만들었던 퇴비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료가 없던 옛날에는 똥과 주변의 풀을 섞어 천연퇴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퇴비는 맹세이골 사람들의 식량인 고구마, 감자, 콩 같은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맹세이골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기발하지 않나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
당산나무	▣ 여기에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바로, 당산나무이지요. 그렇다면 당산나무란 무엇일까요?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 제사를 지내 주는 나무입니다. 맹세이골 윗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팽나무가 당산나무이며 마을 사람들의 안녕, 마을의 풍년, 질병예방을 기원했던 나무입니다. 여기 맹세이골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당산나무에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를 볼 수 있는데 팽나무 외에도 느티나무, 들메나무, 소나무를 당산나무로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당산나무는 맹세이골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을 지켜온 나무이고, 지금도 맹세이골을 지키는 듬직한 나무랍니다. ▣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당산나무가 듬직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당산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어 볼까요? 무슨 소원을 빌었나요?(참가자 대답) 소원을 간절히 빌었다면 당산나무가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옛 선조들의 지혜
방향제로 이용한 누리장나무	▣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 나무는 누리장나무입니다. 꽃은 8월~9월에 피며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누리장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 땅콩잼 같은 누린내가 풍기는데 가까이에서 맡으면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조상님들은 '누린내기 대장'이란 뜻으로 누리장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 여러분! 직접 한번 누리장나무 냄새를 맡아 볼까요? 누린내가 나나요? (잎을 비벼 냄새를 맡도록 한다) 냄새가 어떤가요?(대답) 향긋한 냄새는 아니지만 누리장나무의 누린내가 화장실의 고약한 냄새를 없앴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고약한 화장실 냄새를 감출만 하죠? ▣ 이렇듯 옛 조상님들의 자연을 이용한 사소한 생활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리장나무 외에도 독특한 향기를 뿜어서 화장실 주변의 방향제로 사용된 다른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들인지 찾아 떠나볼까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옛 선조들의 지혜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한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 앞의 해설에서 독특한 냄새로 화장실의 냄새를 가려주었던 누리장나무와 같이 여기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형제도 잎과 열매에서 독특한 냄새가 난답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 볼까요?(잎과 열매를 비벼 냄새 맡도록 유도) 냄새가 어떤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지 않나요?(참가자 대답) 네 그렇습니다. 옛날 맹세이골 사람들은 초피나무를 이용해 생선의 비린내나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없애거나 산초나무는 구토, 구충, 진통효과인 약용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 그러면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형제의 생김새를 관찰해 볼까요? 우선 산초나무와 초피나무의 잎은 쌍둥이처럼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지에 난 가시를 보고 구별을 한답니다. 가시가 서로 어긋나게 나면 산초나무이고 마주보고 나면 초피나무랍니다. 구별 방법이 간단하지요? 다같이 구별해볼까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옛 선조들의 지혜 맹세이골 황토집
비단옷을 만든 뽕나무와 누에	▣ 우와,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뽕나무인데요. 이곳에 왜 뽕나무가 있을까요? 산골마을 사람들은 왜 여기에 뽕나무를 심었을까요? 바로 누에 때문입니다.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를 집 주변에 많이 심어 가꾸었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주변에 집이 있었던게 아닐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옛날 집	▣ 저기, 흙으로 만든 집이 보이나요? 이 가옥은 맹세이골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지붕은 조릿대로 엮었으며 벽은 흙과 돌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이 집을 자세히 보세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해 땅을 파낸 후 돌을 쌓아 올려 지은 집입니다. 이 집만 보아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가옥은 방 2칸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의 크기를 보면 아주 작은데요. 산골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김영선씨가 실제로 살았었지만 지금은 개미귀신이 주인이랍니다. ▣ 그럼 이곳에서 옛날 산골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도 한번 체험해 볼까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나도 산골사람이에요!	산골마을 주민 체험
키질	▣ 혹시, 저게 무엇인지 아나요? 옛날에 이불에 오줌을 싸면 저걸 머리에 둘러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녔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저것은 바로 '키'라고 하는 겁니다. 키는 옛날에 곡식을 담아서 까부르면 가벼운 것은 날아가거나 키의 앞에 남고, 무거운 것은 뒤로 모여 구분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키로 곡식을 까부르는 것을 키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다같이 키질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곡식이 있습니다. 이걸 키에 넣고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어 보세요. 처음이라 잘 안되지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상상하면서 해보도록 해요.
맷돌질	▣ 다음 이건 뭘까요?(참가자 대답) 네. 바로 '맷돌'이죠? 근데 위에 뭔가가 하나 빠져 있네요. 네. 손잡이가 없습니다.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는데요.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처구니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경우를 두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답니다. 맷돌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팥, 콩을 거칠게 부수거나 가는데 쓰였던 생활 도구입니다. 우리도 한번 맷돌질을 해볼까요? 우와, 어때요? 곡식이 가루가 되어 나오는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지.....

[별지 제3호 서식]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황토집 앞마당의 과일나무들
곶감을 만들었던 감나무	▣ 이 산속에 왜 감나무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감나무는 이렇게 깊은 산중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럼 이곳에 왜 감나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나무만 보아도 여기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집 뒤뜰이나 안마당에 감나무 한 두 그루쯤을 심어 길러 홍시나 곶감을 만들어 겨우내 즐겨 먹었습니다. 지리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곶감 말리기에 적당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예로부터 감나무가 많았으며 누렇게 익은 생감의 껍질을 벗겨 잘 말린 곶감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 특산품입니다.
복숭아나무	▣ 옆에 보면 복숭아나무도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도 옛날 산골마을 사람들의 귀중한 식량이 되었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맹세이골 되짚어보기	게임으로 다시 보는 맹세이골
게임	▣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깊은 산골인 맹세이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자연과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지금은 도시 생활과 시멘트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흙과 나무와 풀과 함께 살아왔답니다. ▣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로 모여주세요. 각 3~4명씩 조를 정하세요. 가족이 오셨으니까 가족별로 조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가 다 정해졌나요? 그럼 제가 프린트와 볼펜을 조별로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맹세이골 입구까지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적어오세요. 만약에 나무라면 나무의 이름과 생김새를 적어오고 어떤 장소이면 그 장소가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적어오세요. 저의 해설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다같이 내려가서 맹세이골 입구에서 만나겠습니다. 모두 끝난 조는 맹세이골 입구에 모여주세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맹세이골 되짚어보기	게임으로 다시 보는 맹세이골
게임 프린트 내용	

1	나무이름 : 생김새 :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2	이름 : 장소 특징 : 여기는 무엇을 하던 장소였을까요?
3	이름 : 장소 특징 : 여기는 무엇을 하던 장소였을까요?
4	식물이름 : 생김새 :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5	나무이름 : 생김새 :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6	나무이름 : 생김새 :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7	이름 : 장소 특징 : 여기는 무엇을 하던 장소였을까요?
8	나무이름 : 생김새 :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9	나무이름 : 생김새 :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10	나무이름 : 생김새 :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맹세이골 되짚어보기	게임으로 다시 보는 맹세이골
게임 마무리	▣ 여기로 모여주세요. 지금부터 각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발표하는 조에게는 특별히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조별로 발표를 해보죠. 어떤 조부터 발표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조입니다. 다른 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혹시나 내가 빠트린 부분은 없었는지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참가자 발표) ▣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조도 발표해 볼까요? ▣ 네. 모두 발표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한번 더 되짚어보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나요? 가장 잘 맞춘 일등 조에게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시 나 리 오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 마무리 및 인사	느낌나누기 마무리 및 인사
마무리 인사	▣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농기구와 생활 도구들을 활용하여 산골 생활 체험을 하고 옛 선조들의 생활의 터전이었던 숲을 온몸으로 느껴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재미있고 즐거우셨나요? ▣ 옛 선조들의 생활터전인 동시에 많은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지리산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어울려 자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옛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긴 즐거운 체험과 신기한 자연 이야기를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생활속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옛 선조들의 자연과 함께 했던 지혜로운 삶을 기억하며 언제나 자연을 느끼고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유용하게 쓰인 나무들 -싸리비를 만들었던 싸리나무
주요어 정리	○ 싸리나무
참 고 자 료	○광대싸리 -대극과로 꽃은 6~7월에 피며, 열매는 9월~10월에 열린다. 산과 들에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다. 가지는 갈색~자갈색이며 끝이 밑으로 처지고, 겨울에 어린가지는 말라 죽는다. 잎은 어긋나고 가죽질이며 타원형으로 양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은 흰빛이 돈다. 암수딴그루로 노란색 꽃이 잎겨드랑이에 오며 피고 수꽃은 꽃자루가 짧고 암꽃은 꽃자루가 수꽃보다 조금 길다. 둥그스레한 열매는 3줄의 홈이 있고 익으면 3조각으로 갈라져서 6개의 씨가 나온다. ○조록싸리 -콩과로 꽃은 6~7월에 피고, 열매는 9월~10월에 열린다. 산에서 자라고 나무껍질은 회갈색이고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잎은 어긋나고 3출엽의 작은 잎은 타원형~긴 달걀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앞면은 털이 없고 뒷면과 잎자루에 비단털이 있다. 꽃받침과 열매에 비단털이 있으며 열매는 피침형이 끝이 뾰족하다. ○참싸리 -콩과로 꽃은 7월~8월에 피고, 열매는 9월~10월에 열리고, 산과 들의 양지에서 자란다.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노목의 가지는 밑으로 처진다. 어린가지에 털이 있으며 모가 진다. 잎은 어긋나고 3출엽이다. 작은 잎은 원형~거꾸로 된 달걀형이고 끝이 오목하며 뒷면은 흰빛이 도는 녹색으로 잔털이 있다. 총상차례는 짧아서 분홍색 꽃이 촘촘히 모여 달린 것처럼 보이며 꽃자루에 털이 촘촘히 난다. 달걀형의 꼬투리 열매에 털이 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530p ◦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474p ◦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477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유용하게 쓰인 나무들 -조릿대로 쓰였던 산죽
주요어 정리	○ 산죽(조릿대)
참 고 자 료	○벼과로, 산에서 흔히 무리지어 자라고 줄기는 높이 1~2m, 지름 3~6mm로 자란다며 줄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2~3년간 떨어지지 않고 마디 사이에는 흰가루로 덮여 있다. 피침형 잎은 끝이 꼬리처럼 길고 가장자리에 가시 같은 잔톱니가 있으며 잎집에 털이 있다. 꽃차례는 털과 흰 가루로 덮여 있으며 밑 부분이 자주색 포로 싸여 있다. 작은 꽃이삭은 2~5개의 꽃으로 이루어진다. 줄기는 조리를 만드는 재료로 썼다.
참고문헌 및 출 처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652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유용하게 쓰인 나무들 -우리민족과 함께한 소나무
주요어 정리	○ 소나무
참 고 자 료	○우리나라 전역에 저절로 자란다. 소나무과로 솔, 솔나무, 적송, 육송이라고 부르며, 순우리말 '솔'에서 나온 이름인데, '솔'은 '으뜸'을 뜻하는 '수리'가 변해서 된 말이다. 껍질이 붉다하여 '적송', 내륙지방에 분포한다하여 '육송'이라고 부른다. 꽃은 5월에 피며, 열매는 다음해 9월~10월에 열리고 줄기 밑 부분의 나무껍질은 짙은 회갈색이고 세로로 깊게 갈라지며 줄기 윗부분의 나무껍질은 적갈색을 띤다. 어린순은 붉은빛이 돈다. 기다란 바늘 모양의 솔잎은 8~9cm 길이로 2개가 한 묶음이 되어 가지에 촘촘히 붙는데 자주색 암꽃은 새로 자란 가지 끝에 1~3개가 달리며 노란색 수꽃은 어린가지 밑 부분에 여려 개가 촘촘히 모여 달린다. 솔방울열매는 달걀형으로 길이 4.5cm, 지름 3cm이며 솔방울조각은 70~100개로 익으면 조각조각 벌어지면서 날개 달린 씨가 나온다. 타원형 씨는 길이 5~6mm, 너비 3mm이고 흑갈색이며 날개는 연한 갈색 바탕에 흑갈색 줄이 있다. 목재는 건축재나 펄프재로 이용되며 꽃가루는 '송홧가루'라고 하여 꿀물이나 다식을 만들어 먹고 솔잎은 송편을 찔 때 쓰인다. 줄기 밑 부분에서 굵은 가지가 갈라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430p. ◦ 현암사(2009). 식물비교도감. 12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모습들 -향신료로 쓰인 생강나무
주요어 정리	○생강나무
참 고 자 료	○생강나무는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노란색 꽃이 피면서 산속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이다. 꽃과 잎은 손으로 비비거나 가지를 자르면 생강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생강나무라고 한다. 꽃은 3~4월 에 피고, 열매는 9월에 열린다. 산의 숲속에 자라며, 나무껍질은 짙은 회색이고, 둥근 껍질눈이 많다. 겨울눈에는 털이 없으며 잎눈은 타원형이고 꽃눈은 둥그스름하며 잎눈보다 훨씬 크다. 잎 자국은 반달 모양이다. 꽃은 암수딴그루 단성화이며 산형꽃차례이다. 3월에 잎보다 먼저 핀다. 노란색 꽃은 5송이씩 모여 꽃자루 없이 뭉치듯 달린다. 꽃잎은 6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수꽃은 9개의 수술이 있으며 퇴화한 암술이 있고, 암꽃에는 퇴화한 수술이 있다. 새순과 어린잎은 달여서 차로 마시거나 나물로 먹는다. 열매는 기름을 짜서 머리에 바르거나 등잔의 기름으로 쓴다. 이 기름은 동백기름이라고 부르는데 ,동백나무 열매로 짠 동백기름보다 질이 더 좋다. 한방에서는 말린 가지를 '황매옥'이라고 하며 배가 아플 때나 열이 날 때, 가래가 많을 때 약으로 쓴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176p. ◦ 현암사(2009). 식물비교도감. 128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모습들 -기름때를 없앤 때죽나무
주요어 정리	○ 때죽나무
참 고 자 료	○ 때죽나무과로 대쭉나무, 족나무라고도 한다. 꽃은 양성화로 5월~6월에 흰색으로 피며 총상차례이다. 잎겨드랑이에 2~4송이씩 달리며 지름은 1.5~3cm이다. 수술은 10개며 꽃밥은 노란색이다. 꽃자루는 1~3cm로 길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걀꼴이며 가장자리에 이빨모양의 톱니가 있거나 없다. 때죽나무의 덜 익은 열매 껍질에는 에고사포닌(egosaphonin)이라는 물질이 있어 옛날부터 기름때를 없애는 세제로 사용하거나 고기를 잡거나 독화살을 만드는 데도 썼다. 때죽나무는 대기오염이나 추위에 강하고 산성토양에도 잘 견디므로 오염을 측정하는 지표식물로 이용한다. 또한 목재나 향수 원료로 쓰고 열매는 기름을 짤 때 쓴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현암사(2009). 식물비교도감. 194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모습들 -산골마을의 먹거리(덩굴식물)
주요어 정리	○ 덩굴식물(다래, 왕머루)
참 고 자 료	○다래 -다래나무과이며 꽃은 5월~6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열린다. 산에서 흔히 자라고, 가지 속의 수는 갈색이며 계단모양이고 어린가지에 잔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넓은 달걀형~타원형이며 두텁고 앞면에 광택이 있다. 잎끝이 갑자기 뾰족해지고 가장자리에 바늘 모양의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에 흔히 누운 털이 있다. 암수딴그루로 잎겨드랑이의 취산꽃차례에 3~10개의 흰색 꽃이 매달리는데 꽃밥은 흑자색이다. 열매는 둥근 달걀형이고 황록색으로 익으며 맛이 좋다. ○왕머루 -포도과로 꽃은 6월에 피고, 열매는 9월에 열린다. 산에서 자라고 잎과 마주나는 덩굴손으로 다른 물체를 감고 오른다. 잎은 어긋나고 넓은 달걀형이며 잎몸이 3~5개로 얕게 갈라지고 잎 뒷면에는 갈색 털이 있다. 잎 가장자리에 작은 치아 모양의 톱니가 있다. 잎과 마주나는 원추꽃차례에 자잘한 황록색 꽃이 촘촘히 모여 핀다. 작은 포도송이 모양의 열매는 검은색으로 익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 날로 먹기도 하며 술을 담그기도 한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580p. ◦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636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굴참나무의 희생
주요어 정리	○참나무류(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참 고 자 료	○참나무는 진짜 나무, 고마운 나무라는 뜻에서 이름 지어졌다. 5월에 꽃이 피고, 열매는 9월~10월에 열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토리가 열리며 도토리의 모양은 참나무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참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에는 열매 모양과 잎의 모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잎이 작고 가장자리에 갈고리 같은 톱니가 있으면 졸참나무, 잎자루가 있고 톱니가 물결 모양이거나 약간 뾰족하면 갈참나무, 잎자루가 없고 톱니가 큰 물결 모양이며 밑이 귓불 모양이면 신갈나무, 잎자루가 없고 톱니가 큰 불결 모양이며 잎이 두껍고 뒷면에 갈색 털이 있고 깍정이의 포린이 얇으며 뒤로 젖혀진 것은 떡갈나무이다. ○옛말에 잎으로 떡을 싸 먹는다고 하여 떡갈나무라 하고, 넓은 잎을 짚신바닥에 깔았던 신갈나무, 껍질이 너덜너덜해 갈아 입어라고 갈참나무, 잎의 크기가 가장 작은 졸병나무 졸참나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렸다하여 상수리나무라 하였고 껍질의 코르크층이 두꺼워 지붕을 이거나 목재는 건축자재로 이용한 굴참나무가 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현암사(2009). 식물비교도감. 81p~94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
주요어 정리	○ 당산나무(팽나무)
참 고 자 료	○ 당산나무란? -한국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큰 고목을 당목(당산나무) 또는 도당목이라 하여 마을 전체가 그 나무를 위하여, 명절 산신제, 기우제 등을 지냈다. 평소에도 그 나뭇가지를 꺾는 일은 없지만, 특히 제사를 지낼 때는 금줄을 치고 주변에 황토를 뿌리는 등 정결하게 한다. 팽나무 외에도 느티나무, 들메나무, 소나무를 당산나무로 모시고 있다. ○ 팽나무 -느릅나무과로 꽃은 4월~5월에 피며, 열매는 10월에 열리며, 산기슭이나 골짜기에서 자란다. 나무껍질은 회색~흑회색이며 갈라지지 않는다. 어린가지는 잔털이 빽빽이 나고 겨울눈은 원뿔모양이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형~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윗부분에 잔톱니가 있다. 잎 앞면이 거칠고 측맥은 3~4쌍이다. 꽃은 양성화이며 어린가지의 잎겨드랑이에 취산꽃차례로 달린다. 둥근 열매는 등황색으로 익고 열매 살은 맛이 달콤하며 먹을 수 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383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옛 선조들의 지혜 -방향제로 이용한 나무(누리장나무)
주요어 정리	○누리장나무
참 고 자 료	○마편초과로 꽃은 8월~9월에 피며, 열매는 10월에 열린다. 산기슭이나 골짜기에 자란다. 가지는 회갈색이고 겨울눈은 맨눈이며 자갈색 털로 덮여 있다. 잎은 마주나고 달걀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양면에 털이 있다. 가지 끝의 취산꽃차례에 흰색 꽃이 모여 피는데 암술과 수술이 꽃잎 밖으로 길게 뻗으며 붉은 색 꽃받침은 5개로 깊게 갈라진다. 푸른빛을 띤 보라색 열매는 붉은색 꽃받침에 싸여 있다. 누린내가 나서 '누리장나무' 라는 이름이 붙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612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옛 선조들의 지혜 -식용과 약용으로 쓰인 나무들 (산초나무, 초피나무)
주요어 정리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참 고 자 료	○산초나무 -운향과로 꽃은 7~9월에 피고, 열매는 9월~10월 열린다. 둥근삭과 열매는 크기가 작고 가을에 갈색으로 익으면 껍질이 3갈래로 벌어지면서 검은색 씨가 나온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리 높지 않은 양지바른 곳에 잘 자라며 중부이남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잎의 가장자리에 있는 샘에서 독특한 향기를 뿜은 액체가 흘러나온다. 집 주위에 심으면 짙은 향기 때문에 모기가 모이지 않는다. 열매는 기름을 짤 때 쓰며 열매 껍질은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날 때, 허리와 무릎이 시릴 때 이가 아플 때 약으로 쓴다. 이가 아플 때 열매껍질을 씹으면 마취가 되어 아픔을 못 느낀다. ○초피나무 -운향과로 꽃은 5월~6월에 피고, 열매는 9월~10월에 열린다. 둥근 삭과열매는 적갈색으로, 익으면 벌어지면서 속에 있는 까만 씨가 드러난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과들에서 저절로 자라며 잎에 있는 샘으로 독특한 향기를 뿜은 액체가 흘러나온다. 열매껍질의 가루를 초피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추어탕이나 고깃국을 끓일 때 비린내와 누린내를 없애려고 넣었다. 보통 사람들은 초피가루를 산초가루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구별법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얼핏 보면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나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가지에 난 가시를 보면 알 수 있다. 산초나무는 가시가 어긋나고 초피나무는 가지 난 가시가 마주보고 나 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524p.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200p. ◦현암사(2009). 식물비교도감. 161p~166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옛 선조들의 지혜 -비단옷을 만든 뽕나무와 누에
주요어 정리	○ 뽕나무와 누에
참 고 자 료	○ 뽕나무 -뽕나무과로 꽃은 5월~6월에 피고, 열매는 6월에 열리며, 산기슭이나 마을 부근에서 자란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며 세로로 갈라진다. 잎은 어긋나며 달걀형~넓은 달걀형이고 잎몸이 3~5개로 갈라지기도 하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잎 뒷면 잎맥 위에는 잔털이 있다. 암수딴그루로 어린가지의 잎겨드랑이에 꽃이삭이 달린다. 수꽃이삭은 길이 4~7cm이고 암꽃이삭은 길이 5~10mm이다. 타원형의 열매는 검게 익는데 암술대는 열매가 익은 후 거의 보이지 않는다. ○ 누에 -몸통은 원통형이며, 머리·가슴·배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다리는 가슴마디에 3쌍, 배마디에 4쌍이 있으며, 제11마디 등 쪽에 미각이 있다. 6쌍의 홑눈이 있으나 시각작용은 하지 못하며, 미각과 후각 기능은 아래턱수염이 한다. 직사광선을 싫어하고 15~30 lx의 밝기를 좋아한다. 몸은 젖빛을 띠며 연한 키틴질 껍질로 덮여 있어 부드러운 감촉을 준다. 개미누에는 뽕잎을 먹으면서 성장하며, 4령잠을 자고 5령이 되면 급속하게 자라서 8 cm 정도가 된다. 5령 말이 되면 뽕 먹는 것을 멈추고 고치를 짓기 시작하는데 약 60시간에 걸쳐 2.5 g 정도의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를 이용해 실을 뽑아낸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390p.

[별지 제4호 서식]

해 설 자 용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이야기

구 분	보충자료 정리
3.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시간	황토집 앞마당의 과일나무들 -곶감을 만들었던 감나무 -아이들의 간식이었던 복숭아나무
주요어 정리	○감나무와 복숭아 나무
참 고 자 료	○감나무 - 감나무과로 꽃은 5월~6월에 피며, 열매는 10월에 열린다. 중부이남에서 과일나무로 재배하다. 나무껍질은 회색~회갈색이며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어린가지는 갈색이며 꼬불꼬불한 잔털이 있고 껍질눈이 많다. 겨울눈은 2~3개의 비늘조각으로 덮여 있다. 잎은 어긋나며 두꺼운 가죽질이고 넓은 타원형~거꾸로 된 달걀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종 모양의 연노란색 꽃이 피는데 꽃자루가 없다. 열매는 품종에 따라 달걀형, 구형, 납작한 구형 등이 있다. 단단한 생감을 따서 저장해 말랑말랑해진 감을 '홍시', 생감의 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린 것을 '곶감'이라고 한다. 목재는 심재가 굳고 탄력이 있으며 빛이 검어 '흑시' 또는 '오시목' 이라 부르고 전통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복숭아나무 -장미과로 꽃은 4월~5월에 피고, 열매는 7월~8월에 열린다. 과일나무로 재배한다. 나무껍질은 자갈색이고 어린가지에는 털이 없다. 분홍색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데 가지에 1~2개씩 달린다. 잎은 어긋나고 피침형~거꾸로 된 피침형이며 끝이 뾰족하다. 잎 가장자리에 둔한 잔톱니가 있으며 양면에 털이 없다. 둥근 열매는 노란색~연분홍색으로 익는데 원래 겉에는 잔털이 빽빽하게 나 있다. 흰색의 겹꽃이 피는 것을 만첩백도라고 한다.
참고문헌 및 출 처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228p~229p. ◦진선books(2006). 나무쉽게찾기. 70p.